

중국어교육전공

강원도 최고의 사립 고등학교. 강원도 원주시의 육민관고등학교.

이곳이 내가 한달동안 교생실습을 하게 될 학교이다.

육민관고등학교는 어머니의 모교이다. 동문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이 학교에 교생으로서 교단에 서게 되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들게 된 인상은 교정이 일반 수도권의 학교와 달리 예쁘다는 것이다. 도심의 한 여고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나로서는 느껴보지 못한 교정의 아름다움과 푸름에 감탄이 절로 났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다.

강원도 원주시는 수도권과 달리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었다. 고교 평준화가 201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었다. 내가 맡은 학년은 2학년. 비평준화 학생들이다.

원주에는 약 15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최하위라고 한다. 금년도 입학생인 1학년들은 모의고사에서 원주시 1등을 차지할 정도의 실력자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2,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낮다고 한다. 더러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고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는 인식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 교생 연수를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은, “우리 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인문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다.”였다. 학생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 1주-

교생 실습 첫 날이 1학기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인사하는 시간은 시험이 끝나고 4일차에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었다. 3일간 국어, 영어, 수학, 생명과학, 음악과 교생들과 함께 연구실에 모여 각 종 부서의 연수를 받기로 계획 되었다.

첫 날 교장선생님 면담과 연구부장님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교장실에서 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게 되었다. 강원도 최초의 사립 고등학교로 농촌의 학생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의 자부심이 크다고 한다. 현재는 고교 비평준화로 인해 위상이 약간 꺾였지만 금년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로 학교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도교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학교의 특징은 인문·사회과정, 중국어과정, 자연·이공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중국어과정은 2학년, 3학년 각 두 반씩이다. 한 분의 중국어 교사가 4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 학급당 주 5회, 총 20시수를 수업한다.

2학년은 남녀 합반, 3학년은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누어져있다. 담당학급은 2학년 6반, 중국어반이다. 남학생 22명, 여학생 18명으로 구성된 합반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여자반, 여고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합반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반 학생들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둘째 날, 교감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다. 학급경영, 교과지도,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2013년도 육민관고등학교 교육계획도 안내 받았다. 학교 현황 및 교육계획도 파악하였다.

셋째 날, 중간고사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지도교사의 배려로 시험 감독을 참관하게 되었다.

2학년과 3학년이 반씩 섞여 앉아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컨닝을 방지하려는 학교의 노력이 엿보였다.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 어떤 학생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어떤 학생은

포기를 했는지 누워있는 학생도 있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학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험 감독은 여러 교생 중 나만 참관하게 되었다.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이 되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을 맞이하기 전 학급과 담당교과의 시간표를 파악하고 담당학급 학생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과 대면하기 하루 전, 매우 흥분되고 긴장이 된다.

넷째 날, 드디어 학생들과 대면하였다. 조회시간에 입실하여 학생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한 달 동안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학생들이 반겨주니 매우 기뻐다. 복도나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한 발 더 다가가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해 보았다.

연구부, 교무부 등 다채로운 부서의 연수가 있었다. 실습생들을 위한 학교의 배려가 감사했다. 긴장되고 설렘이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수업에 참관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 기대가 되었으며, 대학교 1학년 처음 중국어를 접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어렵지만 재밌었던 중국어 시간, 고등학교 특히 중국어과정 학생들은 어떤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지 궁금했다.

-제 2주-

2주차 첫날, 아침조회 시간에 입실하여 학생들과 대면하였다. 반겨주는 학생들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 이 학교의 특징은 종례시간과 청소시간이 따로 없다. 청소는 아침, 점심, 저녁시간 세 조로 나누어 청소를 한다. 나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청소지도를 맡게 되었다.

교과 담당교사인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다.

2학년과 3학년의 수업을 각 차시의 한 반씩 참관하기로 했다.

2학년은 학기 시작 후 한달 동안 발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현재 2과 “你叫什么名字?”의 진도를 나가고 있으며 3학년은 입시를 대비하여 2학년 1년간 배운 어법 및 주요 표현을 총 정리하고 있다.

2학년 첫 참관,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의 흥미 유발을 위한 중국 관련 넌센스 퀴즈가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의 언어 향상과 더불어 중국 관련 지식을 함양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 또한 중국에 관련된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에는 부끄러워 하지만 끝까지 대답하는 학생들의 노력에 내심 감동을 받았다.

3학년 수업에서는 어법을 정리하고 날씨 표현을 학습하였다. 아무래도 제2외국어이다 보니 고3 수업에서는 볼 수 없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입시에 찌는 학생들에게 쉽터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틀간 각 반을 들어가 학생들과 인사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네 개 반 모두 저마다의 특색이 있었다. 우선 2학년 5반은 여학생이 더 많아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여학생의 목소리가 크고 활동적인 반면, 6반(담임반)은 남학생들이 많아 남학생들의 더 시끌시끌하고 여학생들은 정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조용한 편이었다. 3학년 5반 남자반은 아무래도 좀 거친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많았다. 6반 여학생반은 활발한 학생들이 많고 이야기가 가장 잘 통하는 반이었다. 서로 처음이다 보니 어색하고 대면대면 했지만 곧 편안해질 것을 기대한다.

또 점심시간 청소지도 시간에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먼저 다가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먼저 이름을 물어보고 다가가기로 했다. 내가 먼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매우 부끄러워했다.

금요일에는 2013 하이드림 페스티벌이 있었다. 원주시 고교연합 체육대회이다. 총 15개의 고교생들이 모이는 행사로 연중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다. 원주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이 페

스티발은 각 학교별로 운동 게임이 참여하고 응원단의 공연을 하는 행사이다. 이 날 많은 비가 내렸지만 행사는 취소되지 않았고 모두들 우의를 입은 채 참가하게 되었다. 비가 오니 학생들을 통제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수시로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며 통제를 해야 하다 보니 교사들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아직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확실하게 익히지 못한 상태인 나는 더욱 어려웠다.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색하기만 했고, 담임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무사히 행사를 마쳤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준 학생들에게 감사했다.

-제 3주-

담당교사가 참관을 하고 내가 수업을 하기로 했다. 내가 수업을 하는 동안 2학년은 3과를, 3학년은 12과의 진도를 맡기로 했다.

3과는 “你家有几口人?” 12과는 “我打算去北京旅游.”이다.

이를 위해서 3과는 가족에 대한 호칭, 12과는 여행에 관련된 학습 자료를 준비하였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학생들이 관심 있게 봐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며 만들었다. 12과의 경우에는 북경 여행에 관련된 과로써 북경의 주요 관광지를 내가 여행하며 직접 찍은 사진을 준비하였다.

첫 수업은 2학년 수업이었는데, 무더운 한여름도 아니었는데, 수업 한 시간 내내 땀이 비 오듯 내렸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지난 주 선생님의 유인물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칠판에 나와 답을 쓰도록 유도하였다. 틀린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었다. 문제를 함께 풀며 지난 2과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수업은 우선 북경 여행사진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였다. 사실 처음 이 사진을 설명할 때는 내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 다음 설명을 할 때는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찍 끝나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하는 수업이었는데 교실의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수업이 설계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시간을 잘 대처하지 못하여 애먹었는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츰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좌석표를 보고 이름을 호명하여 수업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힐 수 있었다.

대부분 순조로운 수업을 했는데 3학년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재가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수업을 하는 내내 힘들었다. 3학년 5반 수업을 들어갈 때면 발걸음도 무거웠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교사인 내가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라는 인식을 하고 수업에 임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제4주-

지도교사의 참관 없이 홀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간이었다.

수업 시간 혼자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선생님은 안 들어오세요?”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흐트러질 것을 염려하여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역시나 담당교사가 들어오지 않자 자는 학생들이 여러 명 발생하였다.

나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관련 동영상을 준비하였는데, 동영상을 볼 때만 반짝 즐거워하던 학생들이 잠을 자는 경우에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끝나지 않는 듯 하다.

대표 교생의 연구수업이 있었다. 1학년 생명과학 수업이다. 타 교생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나의 수업은 어땠는지에 대한 비교가 되었고, 잘 된 점과 개선할 점을 이야기하는 강평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수업에 대한 교사의 능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주의 금요일에는 강원도 사립학교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어 목요일에 교생실습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수요일까지 진도를 마쳤으며 목요일 마지막 날에는 각 반의 학생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진로 등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교사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아쉬움 가득했던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사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반드시 교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현재의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다.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일반대학원 보다는 전문적인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고 공부하게 되었다.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한달 동안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교사가 수업만 잘한다고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학생들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 동료교사 및 상급자간의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학급 담임을 맡으면 한두 명의 학생이 아닌 적어도 40여 명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의 각기 다른 성향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다.

처음 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생들과 달리 비평준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교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담당교사의 말을 떠올려보았다. 대부분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웠었다.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던 것을 반성하게 한다. 겪어보니 누구보다 순수한 아이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했다면 수업을 하는 기술이 조금 더 향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경험한 수업의 어려움은 곧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들었으며, 소통이 어려운 학생들과 점차 친해지면서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군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2학년 보다 고교 2, 3학년 학생들이 더 험하고 다루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교사들의 편견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었다. 고3반에서는 특히나 그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한 달이 마치 일주일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는 실습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겪은 한 달 동안 교단에 서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한 달 이었다.